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인간 지식의 문제들 II

(요 9:18-34)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가 가진 지식은 먼저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딤후 1:2)과 우리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욥 19:25).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인 것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도 압니다(롬 8:28).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일 3:2).

2. 구원에 이른 지식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3)

눈을 뜬 사람은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임은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야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을 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 그럴만한 지식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며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포할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하거나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만이 확실할 뿐입니다. 이 진리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며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안다. 그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시시한 사람인지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가장 무식한 자였고 안 것이 있다면 잘못된 사실뿐이었습니다.

(2) 기적의 확실성에 대한 지식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요 9:25)

눈을 뜬 자는 예수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면 우리에게도 이 같은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3. 죄인의 마지막 길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요 9:34)
눈 뜬 자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했소” 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회개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법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눈 뜬 자를 출교시키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행한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4. 돌아온 자의 길

돌아온 자의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자신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바로 가서 씻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적은 지식을 희생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험편없는 것인가를 알고 희생할 줄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눈 뜬 자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갔지만 투쟁적인 확신을 가진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준 분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선을 죄라고 하고 예수를 불신앙하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요 9:35-36). 쫓겨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 이것이 돌아온 자요,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2022 홍해작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6. 5(주일) - 6. 25(토)

새벽 5시 30분 - 6시

특별새벽기도회 : 6. 20(월) - 6. 25(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목사

2022년 홍해작전이 6. 5(주) 찬양예배 시 개 전 예배를 시작으로 20일간 '말씀과 기도운동' 을 시작한다.

6. 6(월) - 6. 18(토)은 새벽 5시 30분 - 6시 까지 대면 및 영상 중계로 드러지며 6. 20(월) - 6. 25(토)은 새벽 5시 - 6시까지 손달익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6. 26(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승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잠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새벽을 깨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주제 성구 :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 주제 찬송 :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022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1. 회개와 갱신

시대와 상황을 핑계로 예배와 섬김에 나태해진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 교회와 사명

서울교회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3.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되어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4. 이웃과 사회

가난과 질병, 갈등과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5. 선교지와 세계 교회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선교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계 교회가 연합과 일치됨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6.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새로워지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 이루어지며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후 위기, 환경오염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에 '위기'라는 단어가 가진 절박함과 긴박함이 많이 희미해졌다. 아직도 기후 위기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거나 혹은 자신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과학적 통계와 수치를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변화를 통해, 기후 위기가 급격히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시대적 사명에 동참하고자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작한다. 먼저 6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는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편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지구는 더욱 병들 것이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의 바른 변화에 공명(共鳴)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2022 홍해작전

말씀과 기도로 교회 부흥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며



차영도 장로
(2022 홍해작전
본부장)

매년 6월 6일은 서울교회의 홍해작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19년 7월 7일자 순례자를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배방해 금지 본안소송 건 승소판결!”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 5월 22일(수) 변론종결 후 홍해작전이 끝난 7월 3일(수)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홍해작전을 통해 온 성도들이 교회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분쟁 과정 중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작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건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우리들의 예배와 섬김도 나태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홍해작전은 코로나

핑계로 침체되어 있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정상화 시키는 물론 활력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아울러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깨워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부흥의 첫발을 내딛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2 홍해작전 주제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부흥을 위해 먼저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움으로써 우리 앞의 홍해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다락방장은 다락방 식구들에게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해 삶에 지치고 상한 내 이웃의 영혼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홍해작전 기간 중 모세, 바울 선교회와 한나, 마리아 전도회 중심으로 홍해작전 분과 별 실행원들이 함께 6월 4일(토), 11

일(토), 18(토) 각 일자 별로 오후 3 - 4시까지 3회에 걸쳐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기때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 서울교회에 출석하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홍해작전 기간 중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에 초신자를 전도하여 1회 이상 교회에 출석시킨 전도자와 출석한 초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봉사분과에서 간단한 소식을 마련하겠습니다. 25일(토) 마지막 날은 8층 만나 홀에서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가 승전 잔치를 할 것입니다. 홍해작전 주제 찬송가인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홍해가 해결되고,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대학 힘차게 출발하다!



서은석 장로
(성경대학 부장)

2022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인 주중 성경대학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6년 만에 5. 17(화)과 5. 19(목)일 10:30분 602호에서 손달익 목사님의 개강 축하 말씀을 시작으로 8주간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성경대학은 출애굽기 반(강사 안용곤 목사)과 마태복음 반(강사 조동수 목사)으로 운영되며 말씀을 사모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경대학은 서울교회 열린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지난 6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소망부 경로잔치를 마치고

어르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광래 집사
(소망부 부감)

할렐루야!
서울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소망부의 교사로 섬기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망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더욱더 활기찬 교회로 만드는 반전의 기회로 삼고자 지난 연초부터 경로잔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손태현 부장님과 모든 교사가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긴 공백을 깨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의 첫 행사로 어르신 경로잔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여만의 첫 행사 그것도 식사 모임이기에 행사 계획과 일정 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당회의 격려와 후원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회에서 교회 회복과 팬데믹 이후 첫 경로잔치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넉넉하게 지원해 주셔서 소망부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힘이 되었으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고 넘쳐나게 채워주셔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권사회에서 식사 준비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주방에서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모습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과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스테반회의 손길도 더하여 쫓는데, 생업을 뒤로하고 참석한 많은 스테반 집사님들의 섬김으로 행사 준비가 더욱 더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80여 분의 어르신들과 교역자, 시무장로님, 권사회와 스테반회 집사님들을 포함하여 13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후 서문석 원로장로님의 기도로 환영회가 시작되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는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인사 말씀 후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찬양대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어 교역자들의 특별 찬송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새로 부임하신 교역자들과 서로 인사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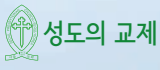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100세가 넘으신 귀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날도 먼 거리에서 참석하신 두 분 권사님께 감사와 표창의 의미로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덕 권사님, 김복녀 권사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오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스테반 집사님들의 빠른 손길로 순식간에 모든 테이블에 식사가 준비되었고 이관규 장로님의 기도 후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겁게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작은 정성에 크게 기뻐하는 어르신들에게 뭔가 드렸다고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로 목사님 내외분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소망부도 22일 새로운 마음으로 개강을 합니다. 앞으로 매주일 1부 예배 후 102호실로 오십시오.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성경도 읽으시고 교우들과 담소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어르신을 모시는 교사의 수가 부족합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이 일에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더 많은 어르신을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아름다운 이 일에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기쁘게 순종하는 소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스데반회 체육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지수 집사
(스데반회 총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
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로 오는 6월 6일(월) 흥해작
전 개전일에 아가페타운에
서 스데반회 체육대회를 개
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어려움으로, 코로나 팬
데믹으로 인해 해마다 개최되었던 스데반회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한 지 무려 5년여 만에
개최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스데반회 체육대회는 손달익 담임목
사님과 부교역자님, 당회와 권사회의 전폭적

인 지지와 협조로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
렸던 성도님의 마음에 활기를 북돋우고 마음
의 상처를 치유하며,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부
흥을 위해 마련되었다는데에 더 큰 의미가 있
습니다.

지도목사님이신 장석남 목사님과 백도환
스데반회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6월 6일
(월) 흥해작전 개전일에 체육대회를 열기로
한 것도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다.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
다”(요엘 2:26)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리
라 굳게 믿습니다.

산과 들에 푸르름이 한창인 요즘, 하나님
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숲속에서 맑은 공기
를 마시며 만나면 반갑고 기쁘기만 한 사랑하
는 우리 서울교회 가족과 함께 모여 담소하며
각종 체육 행사와 게임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길요 오셔서 가슴을 활
짝 펴고 주님께서 주신 즐거운 한때를 맘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날짜 : 6월 6일(월요일)
- 장소 : 아가페타운
- 출발 : 흥해작전 새벽기도 후 오전 7시
- 교통편 : 대형버스 1대, 스타렉스 1대
- 초대 대상 : 스데반회 회원들과 가족분들
-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봉헌부 모집

주일 2부 봉헌부에서 봉사하실 성도를 찾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문의 : 흥한규 집사 010- 5462-0497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
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
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규 소령

동 정

■ 득녀 : 박상협 성도 · 명윤아 성도
(4교구 김정열 권사 딸 가정)

■ 식사 제공 : 정을순 권사
(범사에 감사드리며)

- 퇴사하시며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30일	월	느 8-10		눅 1-2	
5월31일	화	느 11-13		눅 3-6	
6월1일	수	에 1-3		눅 7-9	
6월2일	목	에 4-10		눅 10-12	
6월3일	금	욥 1-3		눅 13-17	
6월4일	토	욥 4-7		눅 18-21	
6월5일	주일	욥 8-10		눅 22-2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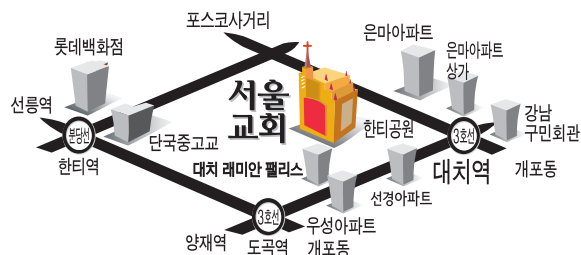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배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을 내어 시대를 헤쳐
나가며, 창조질서의 회복과 보전의 기독교적 사명
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오랜 기간의 비대면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금 모이
기에 힘쓰며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을 다하고 열
매를 맺는 서울교회, 한국 교회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속히 오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